

한민족의 따스함 느껴서 '행복'

조선족유학생 18명 영월 법흥사 등서 한국불교·문화체험



조선족 유학생들이 옷놀이를 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뻐요”

영월 법흥사, 서울 화계사, 한민족 클럽은 조선족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26-28일까지 3박4일간 한국불교 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 회장 김용선씨를 비롯 건부급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한국불교 문화체험 캠프는 26일 저녁 서울시 화계사에서 외국인 수행자 인 수련 스님과 법공 스님으로부터 한국어로 한국 및 세계불교문화에 대한 특강을 듣는 것으로 시작했다.

유학생들은 다음날 아침 적멸보궁 법흥사로 향했다. 법흥사에서 이틀 동안 예불, 법고, 범종타종, 108배 등의 불교적인 체험을 했다. 또 적멸보궁까지 명상 코스를 산책한 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옷놀이 등을 하며 전통문화에 빠져들었다.

유학생들은 법흥사 주지스님과 교의의 대담 시간에 “초청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국에 유학은 조선족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우리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느끼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흥사 주지 도원 스님은 “조선족 유학생들에 대한 불교계 및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 보겠다”며 “법흥사는 지속적으로 조선족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법흥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후 강원도 동해 바다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용선 씨는 “이번 행사 참여로 인하여 불교에 대한 신비감과 거리감을 없앨 수 있었다”며 “사찰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민족의 따스함과 풍류도 깊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유학은 조선족 유학생들은 4000여명으로 유학생들 간에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광주 덕림사 가족법회 열어 전국사경대회 정례회 계획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가 1월 26일 시내 읍식점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가족법회를 갖고 2007년을 수행 및 포교 도약의 해로 선언했다(사진).

이날 덕림사는 영상물을 통해 덕림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수행, 포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지 무이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22세기는 문화시대이다”며 “불교문화로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개최한 전국불교사진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롭게 전국사경대회를 신선했다”고 밝혔다.

이날 덕림사는 가족법회와 함께 거룩한 만남(경전반) 2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21명의 학인이 1년간 경전강좌를 마치고 영예의 졸업장을 받았다. 덕림사는 오는 3월 21일 지정보살상(시지정 윤희문화제 27호) 복장 의식 및 국제보살계를 봉행한다.

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윤예중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빛고을(光州)불교가 젊어지고 있다. 대중법회에 젊은 불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다르다. 관공사마다 불자회가 창립되고, 단주나 불교용품품에 지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신행 및 불교관련 단체에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들고 있어 광주 불교의 앞날을 밝게 한다. 3-4년 전부터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일꾼 10여 명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현지 스님, 이하 광주 생명나눔) 윤예중 사무국장(48. 39)도 그중 한사람이다.

2005년, 광주 생명나눔 살림살이를 맡은 윤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흡수 기증 429명, 사후신신기증 110명, 뇌

윤 국장은 고등학교시절 광주 용화정사 학생회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만남을 시작했다. 대학교(항공대)에 가서는 다불련 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사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 국불교대학생 불교학생회 28년차 회장 맡아 전국 200여 지회 3만여명의 회원들을 이끌기도 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불교’를 서원한 윤 국장은 2001년 땅 끝 해남 대흥사 기획실장을 맡아 본격적인 불교활동가로 나섰다.

산사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산문을 개방한 ‘대흥사 새벽술집’은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전국에 ‘템플스테이’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서산대제, 초의문화제, 어린이 한

작년부터 활동, 한해동안 장기기증 774건 ‘실적’ 불자·시민 함께 참여하는 생명나눔운동 준비

사시 장기기증 108명 등 총 774건에 이르는 장기기증 실적을 올렸다. 지난 9년간 2600여건의 장기기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약 30%를 한 해 동안 이룬 것이다.

또한 소아암 투병환우 지원사업으로 나눔행사와 나눔의집 운영, 나눔 돼지 분양 등으로 모금된 성금 5500여만원을 환우들에게 전달했다. 60여명에 불과하던 후원회원이 한 해 동안 220여명으로 급증한 것만 보아도 광주 생명나눔의 왕성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광주 생명나눔은 장기기증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우뚝 섰다.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광주 생명나눔 2007년도 총회’를 마친 윤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금년에는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자비를 실현하는 불교시민단체의 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학당, 해남 불교대학 등의 실무를 맡아 지역사회의 불교가 하나되도록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해들어 광주 생명나눔은 혈액은행 사업을 벌이는 ‘빛고을 사랑운동’과 소아암백혈병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광주시민 희망걷기대회’ 등 특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 운동을 불자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장기기증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만이 마지막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보시행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불제자로 거듭나는 장기기증과 후원회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후원문의: 062-234-6602)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043)732-5560

충남동부지사: (010)3069-3170

“향으로 건강 찾고 명상으로 마음 챙기세요”

interview

거창 달마사 청오 스님



정각향 전용 항로

“달마사에 오는 분들은 모두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 달마사 주지 청오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천연향인 정각향의 전수자다. 스님은 집안 대대로 불모임을 해왔다. 외할아버지는 정각향을 이었고, 아버지는 부처님을 조성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정각향 만들기를 배웠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부처님 조성에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정각향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다. “요즘 말로 한창 잘 나가던 때 꿈에 나타난 도인이 머지않아 죽을건데 계속 이 일에 매달려 있을건지 아단을 치셨다”는 스님은 두 번 이상 그 도인 꿈을 꾸고는 도자기에 손을 대게 됐다.

우연히 도자기 공장에서 스님에게 작업을 요청한 것. 모든 것을 홀출 던지고 몰두한 일이 황토로 굽속의 도인을 빛어내는 일이었다. 일심으로 매달렸다. 곧 죽는다는 날짜를 넘기고 장장 3년이나 걸려서 만들

어낸 도인은 달마대사. 그렇게 황토달마를 만들어냈고 무료 보급에 나섰다.

“달마대사가 저를 이끌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유산 자락에 달마사를 창건한 것도 달마대사의 힘이죠.”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보너스로 생긴 삶. 아픈 이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전수했던 산아초로 만드는 정각향을 다시 복원하기로 했다. 지리산을 헤메다니며 손끝이 쪼다 해지도록 약초를 채집해 향을 만들어냈다. 스님이 만든 정각향은 불을 붙여 피우는 향이 아니라서 더욱 독특하다. 천연 산아초를 물과 함께 피우는 향으로 가슴효과도 더해져 아파트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 때문에 천연 가슴·공기청정기를 대신한다.

청오 스님은 “달마부들, 아미수, 산아초향으로 건강을 찾고 명상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941-1083 김지연 기자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아초 원료로 정각향 복원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1. 남경중의약대학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박 사 과 정	3년	2명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 전용 기숙사, 식당 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 의 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東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중·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 10매 · 입학신청서 1통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재성(연세대) ▲한승정(탐국대)
 - ▲이정화(경국대) ▲서연희(한국항공대) ▲박병수(영지대)
 - ▲박영문(영지대) ▲강정우(충남대) ▲이경환(배재대)
 - ▲이종환(우석대) ▲김재운(경남대) ▲최종건(UCLA)
 - ▲황진영(우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 ▲김민환(인원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니(광주여고)
 -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 석사과정 합격자—
- ▲신병홍(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홍(경희대 한의학과)
 -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중(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